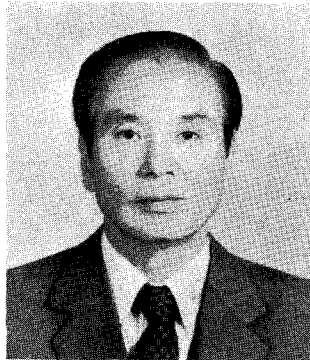


WEC 初期 活動의 回顧

-會議에 얽힌 남기고 싶은 이야기-

- 1972. 9 WEC-IEC會議 參加 (New Zealand)
- 1977. 9 第10次 WEC總會 參加 (Turkey)
- 1980. 9 第11次 WEC總會 參加 (FRG)



金 鍾 珠
(株)무디코리아 會長
(前 韓電 副社長)

오래된 과거 이야기를 쓰다 보면 생각보다 기억이 희미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我田引水격으로 自己中心으로 쓰기 쉬운 것이 사람의 심리인듯 합니다. 나도 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無意識 中에 그렇게 되지 않을 런지 자신이 없습니다. 독자께서는 관용의 마음으로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加入과 얽힌 이야기들

1965년 봄으로 기억한다. 美國의 W. Cisler 씨의 권유로 韓國電力(株)이 WPC에 加入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현재의 WEC가 WPC 즉, WORLD POWER CONFERENCE로 불리웠고, 주로 電力問題를 협의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체였다.

여기에 加入이 되면 우리나라 電力事業에 도움이 되는 많은 情報·資料를 얻을 수 있고 國

際協力を 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國위선양을 위해서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商工部와 外務部에서도 반대하지 않았다. 당시 朴英俊 韓電社長께서도 열심히 밀어 주셨다.

1965년 10月頃 WPC 國際執行理事會에 加入節次 등을 문의한 결과, 英國 런던에 있는 事務局에서 加入에 必要한 規約, 節次說明, 書式 등을 11月頃 보내 왔다.

우리나라 電力事業체는 韓國전력주식회사 뿐이었으므로 따로 國內委員會를 만들지 않더라도 韓國전력주식회사가 加入主体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듬해인 1966年 3月 韓電社長 名義로 加入申請書를 WPC/IEC에 제출하고 商工部와 外務部에도 報告했다.

그後 WPC측 요청에 의하여 韓電에 대한 補充資料(會社 設立時期, 定款, 年間發電 電力量, 電力供給 區域 等)를 보내고 상공부 및 외무부에 加入이 되도록 지원을 부탁하였다. 美國 WPC

國內委員會에도 加入을 支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966年 10月 東京에서 개최된 WPC/IEC에서 “韓電이 韓國을 代表할 수 없다”는 理由로 否決되었다. 이러한 節次上的 문제같은 事務局에서 일단 通過되어 IEC에 上程됐으면 그대로 加入이 可決될 수도 있을 것인데 北韓을 의식한 소련 등 公産권 代表들이 반대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1967年 3月과 4月에 韓電과 電力生産의 燃料供給者인 石炭公社와 石油公社를 포함하여 韓國國內委員會를 設立하기로 하고 商工部에 許可申請을 하면서 石公과 油公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1967年 5月22日 商工部 電力局長室에서 WPC 韓國國內委員會 設立을 위한 關連기관 회의를 가졌다. 이때 參席한 기관은 상공부, 韓電, 석공, 유공, 산업은행, 大韓전기학회, 大韓전기협회 등 7개기관이었다. 여기서 ㉔ WPC 한국국내위원회를 設立할 것과 ㉕ 本委員會가 設立될 때까지 設立될 委員會를 代表하여 韓電社長이 WPC會員 加入을 推進하기로 決議하였다.

1967年 5月22日 上記 會議錄에 의거, WPC 韓國國內委員會(KOREAN NATIONAL COMMITTEE) 회장(한전사장) 명의로 加入申請書를 다시 提出했다.

1967年 9月 22日 WPC/IEC로 부터 “韓國國內委員會의 管轄地域이 不明하여 加入申請書를 無効로 간주하고 票決에 附하지 않았다”는 通告를 받고는 순수한 民間機構인 世界動力會議(WPC)도 政治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실감하였다.

이러한 事實을 商工部 및 外務部에 報告하고 對策을 協議했다. 後 WPC 美國國內委員會와 협의한 결과 한국국내위원회의 管轄지역이 “韓半島 全域”으로 규정된 것이 公産권 회원국들의 반대로 申請書가 無効로 간주됐다는 이야기였으며 大韓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加入申請書를 냈다가 管轄지역 문제로 加入되지 못하여 부득이 管轄지역을 “대만섬, 金門도, 마쯔섬...”으로 명확

히 규정하여 加入이 可決됐으니 한국도 管轄지역을 休戰線 以南으로 규정하면 加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大韓民國이 韓半島에서 唯一한 合法政府로 유엔에서 認定받고 있는데 休戰線 以南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한 문제였으며 政府에서도 難色을 表示했다. 그렇다고 管轄지역을 前과 같이 韓半島 全域으로 해서는 再申請해 봤자 結果는 뻔했다. 당시 外務部 邦交局長과 몇차례 협의를 거듭하여 열심히 妙案을 모색했다. 그 결과 “現在 大韓民國 政府의 行政力이 미치는 全地域”으로 하면 될 것이며 이것은 外務부로서도 양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特히 “NOW” 즉 “현재”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管轄지역을 外務部 邦交局長의 見解대로 1968年 5월 6日 韓國國內委員會 명의로 세번째 申請書를 提出했다. 後 몇 차례 管轄지역에 對한 補充說明 요청이 있고 또 回答을 보내고 한 다음 1969年 6월 2日 WEC/IEC(1968年 8월 8日 名稱이 WORLD ENERGY CONFERENCE로 改稱되었다) 앙카라會議에서 韓國의 WEC加入이 條件附로 可決되었다.

그 條件은 “90日內에 한국국내위원회는 管轄지역을 보다 正確하고 WEC/IEC가 充分히 納得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이었다. 결국 公産블록에서 休戰線 以南이라는 表現을 끌어내려는 속셈이었다. 기억이 확실치는 않으나 다시 外務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로는 휴전선 以南”이라는 보충설명서를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하여 1969年 10월 8日 한국이 正式會員으로 加入 決定 됐다는 通告를 받게 되었다. 순수民間 國際協力體인 WEC에 韓國이 加入하는 문제도 결국 美·蘇 양대국의 외교 싸움장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2. 1972년 WEC-IEC會議(뉴질랜드 와이라키)에서 경험한 일

韓電 副社長으로 재직 중인 본인과 韓電 成樂正 부장(후에 한전사장)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뉴질랜드는 平和롭고 公害가 없는 잘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 電力會社에 몸담고 있는 우리에게 세계에서 제일 대규모인 地熱發電所를 볼 수 있어 多幸스럽게 생각되었다.

뉴질랜드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였으며 會議가 열린 「와이라키」는 溫泉, 火山地帶에 있으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미리 받은 會議 議題에는 우리나라와 外交關係가 없고 親北韓的인 나라-알제리아로 기억한다-의 WEC 加入申請이 處理되게 되어 있어 外務部와 協議하여 指示를 받고 갔다. 外務部의 指示 內容은 票決때 우연히 離席함으로서 表決에 參加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때 안 外交用語이지만 反對意思를 表示하는 데도 否決·棄權이 있고 棄權 中에도 表決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棄權하는 경우와 의도적으로 離席하는 경우 棄權 中에서도 제일 약한 것이 우연한 離席 즉 Unintentional Absence 라는 것을 說明을 듣고 알게 되었다.

會議 당일 決算·予算案 등 議題가 順序대로 處理된 다음 “알제리아”의 WEC加入問題가 上程되어 事務局의 說明이 있는 다음 票決에 붙여졌다. 그 조금 전에 우리 한국대표 두사람은 슬그머니 회의장을 빠져나와 화장실에 가 있었다. 우리 뒤를 따라 대만대표도 화장실로 왔다. 그들도 정부로부터 같은 指示를 받았다고 했다.

3. 1977년 터키 이스탄불, 제10차 總會에서 있었던 일들

이 會議에 參席人員은 상공부 이창섭차관보, 石公 황인권부사장, 본인(원자력연구소 부소장), 湖南精油 변규질 이사, 산업기지개발공사 오세훈부장(現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韓電 김영권부장의 6名이었다. 이스탄불은 흑해의 유럽 쪽 끝에 있는 東洋과 西洋의 경계에 위치한 역사적인 도시였으나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옛날의 영광을 자랑할 뿐 그 당시는 잘 사는 편도 아니고 질서도 없어 보였다.

WEC 사무당국을 통하여 호텔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방이 두개 밖에 없다고 하여 다른 二流호텔로 옮겨야 했고, 그 호텔에는 IEC 명예회

장인 W. Cisler씨도 溜하고 있었는데 회의기간 중 종업원들이 파업을 하여 식사는 고사하고 물 한잔도 얻어 먹을 수가 없어 우리 젊은 사람은 또 참을 수 있지만 80노인인 Cisler씨가 고생하는 것을 보기가 딱했다.

회의 마지막 하루 전날 저녁에는 소련 총영사관에서 회의 참석자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하고 식사 후 소련 및 위성국가의 戰後復舊에 관한 記錄映画를 보여준다는 초대장이 와 있었다.

이때는 회의 參席者의 半以上이 이미 떠났고 우리 代表團 中에서도 本人과 産基公의 오부장, 韓電의 김부장이 남아 있었다. 본인이 소련공관에서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記錄映画도 구경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이니 가보자고 제의했더니 兩部長은 주저했다.

첫째는 소련공관에 초대받아 가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좋지 못하게 생각할 염려가 있고, 둘째는 혹시 신변에 위험이 있을까 염려해서였다. 첫째 염려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회의참석자 多數가 가는 회의 행사의 일부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둘째 염려에 대비하여 美國대표와 프랑스 대표에게 갈 때와 올 때도 함께하고 식사와 영화관람 중에도 우리와 옆자리에 앉아 우리를 보호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서 별 걱정이 없다고 說明하여 셋이 함께 가기로 했다.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것은 記錄映画를 보고 싶어서였다. 특히 북한의 전후 복구상황을 보고 싶었다. 식사전 카탈파티에서 「폴란드」 대표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鑛物資源專門家라고 自己紹介를 하고 1950年 6月 왜 南쪽에서 北朝鮮을 침공하여 동족끼리 전쟁을 했느냐고 했다. 그런데 아니고 그와는 반대로 北쪽에서 不意에 南侵하여 南韓에서는 그에 對한 아무 준비도 없어 3日만에 首都서울을 빼앗겼다고 여러가지로 說明을 했더니, “그러냐? 정말 그런 모양인지 납득이 잘 안된다”며 의아해 하면서도 놀란 표정이었다.

식사후 映画를 보았는데 소련과 동유럽 여러 나라들의 비참한 전후 파괴된 모습, “용감한 인민”들의 희생적인 복구공사 장면, 현재의 복구된 훌륭한 모습 등을 보여주었다.

영화에는 여러 공산국가의 통계가 제시 됐으나, 예를들면 소련의 철강산업은 현재 1945년에 비해 몇배, 電力은 몇배, 폴란드, 체코 등 여러 나라에 관해서도 여러가지 산업의 그간 成長을 1945년 대비 倍數만 이야기 하고 現在 生産量, 설비용량 등 수치는 전연 제시되지 않았다. 소련의 도움으로 몽고에 대규모 發電所를 건설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그 발전소의 施設容量도 대규모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러나 대형 트레일러에서 내리는 큰 나무상자에 25,000KW 라는 숫자가 보였다. 이 記錄映画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으나 北韓과 쿠바에 관한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공산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소련과 밀착된 이 두나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스탄불에는 조그마한 중국식당이 하나 있어 우리 일행은 자주 갔다. 터키에 관해서 잘 아는 분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이 큰 터키내에 중국식당이 이스탄불에 하나 밖에 없어 우리 대사관 직원들도 일부러 이곳까지 중국음식을 먹기

위해 온다고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나라가 外國人에 대해서 好意的이나 배타적이냐 하는 尺度가 그 나라에 중국인이 경영하는 중국식당이 몇개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터키는 나라 사람들은 아주 배타적이어서 중국식당이 전국에 하나 밖에 없으며 그것도 중국사람과 터키사람의 50대 50 합작이며 서로 믿지 못하여 매일 決算하여 利益을 나누어 가진다고 했다. 터키에는 그 많은 관광자원이 잘 보존되지 못하여 손상되어 가고 과손되어 가는 것을 보니 안타깝게 생각되고 우리도 文化財를 잘 보존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國內委員會(National Committee)도 크게 成長하여 우리나라 에너지界를 총망라하게 되었으며, 昨年에는 우리나라에서 WEC/IEC會議도 開催하게 되었으니 그間 國力の 伸張에 힘 입은 바 크겠지만 歷代會長님을 비롯하여 關係實務陣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며 멀지않은 장래에 WEC總會도 主權할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한다.

(韓國에너지協議會 個人會員)

